

중국, 40년만에 산아제한정책 전면폐지?

By 김현지, 이예빈



UN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17개 중 16번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말하고 있다. 이 목표 안에는 12개의 세부목표가 존재한다. 이 기사에서는 그 중 9번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74년, 중국의 인구수는 약 9억 명을 초과하며 사회적으로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모택동 국가 전 수석은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을 것을 권장하는 수준이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고 느껴 1980년부터 한 명만 낳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월소득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화로 약 3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중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벌금이었기에 많은 가정에서는 두번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등록 아이 즉, '헤이하이즈'로 두었다. '헤이하이즈'란, 산아제한 정책으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아이들은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복지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 결과로 범죄에 연루되기 가장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싼 값으로 임대시장에 자주 팔리기도 하였다.

즉 산아제한정책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인구 수를 제한하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중국 내부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이를 구제하는 정책을 내세운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산아제한정책으로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한 속도로 낮아졌고,

이제는 인구를 늘릴 필요를 느낀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에서는 두 자녀 정책 도입과 더불어 미등록 아이들인 헤이하이즈 아이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행 1년 만에 약 1,400만 명이 호적에 등록되었고, 출생 인구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인 1786만 명까지 늘었지만, 2017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도에는 15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 명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4~2018년 중국 출생인구 추이



NEWSPIR

이를 산아제한 정책의 여파라고 판단한 중국은 지난해 8월에 가족 계획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한 민법전 초안을 완성했다. 이어서, 10월에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축·가정발전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기해년을 앞두고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우표에는 부모돼지와 새끼 돼지 3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본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이푸셴 교수는 "새 기념우표는 중국이 자녀 출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보아 내년 3월, 수정된 민법전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이며, 그 결과 산아제한정책이 전면 폐지될 전망을 보인다.

비록 미등록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마련한 정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전면 폐지됐을 때 중국의 헤이하이즈(미등록) 아이들은 구제될 것이고,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국가의 혜택이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51261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2800034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507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03129066775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34741>